

#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해외 대학의 블렌디드 러닝 사례 연구

—체코 찰스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서진숙\* · 장미라\*\*

## Abstract

Seo Jinsuk, Jang Mira. 2016. 12. 31. **Research on Cases of Foreign Universities' Application of Blended Learning Using VOD -Focusing on the Dept. of Korean Studies of Charles University in Czech Republic.** *Bilingual Research* 65, 223-25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application of blended learning through VOD is being managed in Korean classes in foreign universities. In order to do this, theories of blended learning were examined and models of blended learning applied VOD were formed. Also, at Charles University in Czech, actual cases of blended learning lesson plans and lesson structures and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native Korean professor, non-native Korean professor and students were the focal point of examination. Those results and the learning effects were perceived positively by native Korean, non-native Korean professors and students and VOD contents and structure was also found to be positively perceived. However, there was a partial difference regarding lecture plan's focal points and blended learning details. This paper helps with how to teach blended learning through VOD Korean lectures abroad in detail with lesson modules and teaching methods. (Kyung Hee Cyber University)

**【Key words】** Blended Learning(블렌디드 러닝), Video on Demand; VOD(온라인 강의), Instructional Model(수업 모형), Foreign University(해외 대학), Native Korean Professor(한국인 교수), Nonnative Korean Professor

---

\* 제1저자: 서진숙

\*\* 교신저자: 장미라

(현지인 교수), Korean Language Course(한국어 과정), Dept. of Korean Language(한국어학과), Dept. of Korean Studies(한국학과)

## 1. 서론

이 연구는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과 내지는 한국학과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Video on Demand; VOD)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 학습, 강의법과 토론법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학습 방법과 도구, 기술, 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학습 방법을 통칭한다.<sup>1)</sup>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을 가리키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의 활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된다.

Driscoll(2002)은 블렌디드 러닝의 적용 전략에 대해 학습에 관련된 참고 자료를 웹에 제시하여 학습자가 필요한 최신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시험이나 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질문과 토론을 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온라인 환경을 자료 중심으로 활용하느냐, 시험이나 평가에 활용하느냐, 상호작용에 활용하느냐에 따른 것이었다. 이혜정(2008)은 대학에서 이

---

1) 블렌디드 러닝은 블렌디드 수업, 혼합교육, 혼합학습, 혼합형 수업, 혼합형 학습 등과 같이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초기 블렌디드 러닝은 면대면의 전통적인 수업과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온-오프라인 혼합이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혼합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보다 강조하여 블렌디드 이-러닝(Blended e-Learning)이라 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을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 환경 내지는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강의를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혼합 학습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사용한다.

루어지는 블렌디드 러닝의 활용 유형을 디지털화된 텍스트(TEXT), 파워포인트(PPT), 온라인 강의(VOD), 웹기반교수(WBI) 등을 활용하는 ‘자료 기반’,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 간 혹은 학습자와 교수 간 질의응답이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중심’, 오프라인 교실에서 컴퓨터나 각종 멀티미디어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기반’과 ‘상호작용 중심’은 온라인 환경의 활용 양상과 관련된 블렌디드 러닝이며,<sup>2)</sup> ‘ICT 활용’은 온라인상의 자료나 상호작용 활동을 교실 수업 내에서 활용하는 양상과 관련된 블렌디드 러닝의 방식이다.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상의 텍스트나 이미지, 드라마나 영화나 뉴스나 팟캐스트와 같은 영상이나 소리, 교육용 콘텐츠 등 자료를 활용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에서부터 별도의 저장 장치에 담긴 자료를 교실에서 재생시키는 방식까지 다양하다. 또 비디오컨퍼런싱과 같이 교실에서 온라인상의 동시적 상호작용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156명을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방식에 대해 조사한 장미라(2016)에 따르면, 블렌디드 러닝 경험자는 67.3%였으나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블렌디드 러닝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96.2%에 달했다. 관심 정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에 있어 비사용자군에 속하지만 블렌디드 러닝에 긍정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알고 있으며 보다 더 자세하게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

2) 블렌디드 러닝에서 온라인 환경의 활용은 오프라인 교실을 보완하는 예습이나 복습, 심화학습과 같이 개별 학습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으나, 온라인 커뮤니티(on line community),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과 같은 온라인 교수·학습 환경이 이용되면서 오프라인 교실의 상호작용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방식도 널리 이용되었다. 또 교실 수업과 병행하면서 온라인 교수·학습 환경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보다 국외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적고 자신감이 있으며 수업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료와의 협력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의 활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장미라(2016)는 온라인 강의 활용이 증가한 것에 주목하였는데, 블렌디드 러닝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거나 활용해 보고 싶다는 응답자는 39.8%로 두세 명 중 한 명에 달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외 그리고 교육기관의 교수·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제안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서 활용 가능하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떤 교수·학습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처방적(prescription) 접근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고려한다. 그리고 해외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강의 개발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과목의 구성과 실제 운영 사례를 체코 찰스 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교수·학습 환경 분석과 온라인 강의 개발

블렌디드 러닝은 인터넷과 웹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자원을 전달할 수 있고(Rosenberg 2001) 기존의 학습 환경을 개선시키고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Driscoll 2002) 교사 중심의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Khan 2004) 오프라인 교육만 진행할 때보다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논의되었다. 또 많은 연구들에서 학습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블렌디드 러닝을 운영하는 교수에 대한 면담 내용을 담은 신동석(2003), 이동훈·이상곤(2009), 서지연·심창용

(2012) 등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연스러운 연계, 학습자를 안내하는 교수의 역할, 온라인 콘텐츠 활용 시 지적재산권 문제 등과 같은 온라인 자료 활용 관련 문제 발생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교수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커뮤니티나 LMS 등을 활용할 때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때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강의가 개발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강의를 수업에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교수의 역할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과, 한국학과에서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학에 대한 요구가 있고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반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수가 부족하다. 또 현지에서 수업 관련 자료 접근성 및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접근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체코 찰스대학교 한국학과의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 학과에서 요구되는 온라인 강의의 내용과 설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1 온라인 강의 개발을 위한 요구 및 교수-학습 환경 분석

체코 찰스대학교(Charles Univ.)는 1950년에 한국학 강의를 개설한 이래 60여 년 동안 한국학 전공을 유지·확대해 왔다. 찰스대학교 한국학과는 체코 내에서 유일하게 학사, 석사, 박사를 배출해 온 유럽의 대표적인 한국학과이다.<sup>3)</sup> 초기에는 기초 조선어, 조선 문자 입문, 조선어 회화, 조선 역사, 경제 입문 등을 가르치고 자료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고, 졸업생이

3) 체코의 한국학과는 찰스대학교가 유일하다. Tomáš Horák(2011)에서는 체코 내에 총 7개 대학에서 한국어 내지는 한국학 강의가 교양 또는 전공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후 김지형 외(2015)에서는 찰스대학교 외에 팔라즈키대학교, 메트로폴리탄대학교, 마사리크대학교에 한국 관련 교양 강의가 개설되어 있으며 찰스대학교 한국학과의 교강사가 강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역관, 외교관, 기자 등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과정도 추가하였다. 교육과정은 언어 교수에 초점을 두면서도 한국 문학, 역사, 종교 등의 흐름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과 교수들은 한국의 불교, 유교, 문학 관련 저술을 체코어로 번역하여 한국학을 알리고 있다. 한국학과의 교육 과정은 <표 1>과 같다.<sup>4)</sup>

<표 1> 한국어·한국학 관련 개설 과목(체코 찰스대학교)

학부 과정	한국학 입문(3학점), 한국어 입문(4학점), 한국학 입문 세미나(3학점, 13주), 한국어 문법1(9학점), 한국어 1(7학점), 한자와 한문(6학점), 한국어 문법 2(6학점), 한국어 2(6학점), 시청각 한국어(3학점), 한자 텍스트 읽기(6학점), 한국 문학 1(5학점), 한국 역사 1(4학점), 오늘의 한국(3학점), 읽기(6학점), 한국어 3(7학점), 신문, 잡지, 논문 읽기(4학점), 한국 문학 2(6학점), 한국어 어휘론(4학점), 문학작품 읽기(5학점), 한국 역사 2(3학점), 동양사상사(9학점) ※ 필수 선택 과목 : 국어사(6학점), 한국어 전문 용어(6학점), 한국 고전 해석학(6학점), 한국 한문 문학(6학점), 아시아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치(6학점), 한국 불교사(6학점), 북한 역사와 문화(6학점), 아시아에서의 한국 문화의 위치(6학점), 한국 회화(6학점)
대학원 과정	한국어 문체론(9학점), 국어사(6학점), 전문 텍스트 강독(6학점), 고전 해석 1(2학점), 세미나 1(5학점), 통번역 입문 1(6학점), 한국사(10학점), 필수 선택 과목 1(6학점), 특수 텍스트 해석(2학점), 고전해석2(3학점), 필수 선택세미나(3학점), 통번역입문2(6학점), 한국 문학사(10학점), 통번역 세미나(6학점), 전문 텍스트 해석2(6학점), 고급 말하기(6학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목은 한국인 교수와 현지인 교수가 함께 팀을 이루어 가르치고 한국학 과목은 현지인 교수가 담당한다. 한국인 교수는 한 명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이며, 현지인 전임 교수는 다섯 명으로 한국 문학, 한국어, 한국 불교, 한국 유학 전공자이다.<sup>5)</sup> 한국학을 전공한 교수진

4) 찰스대학교의 학제는 학부 3년, 석사과정 2년, 그리고 박사과정이다. 학부 한 학년의 학습자 수는 10명 내외이고 석·박사과정은 전체 10명 정도이다. 한편, 체코의 대학에는 복수전공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한 대학 내에서뿐 아니라 대학 간에도 이루어진다. 찰스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도 경제, 문화, 철학 등 다른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에 의해 다양한 한국학 과목이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만 한국학 입문 성격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체코 현지의 온라인 강의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온라인 강의 개발/활용을 위한 현지 조사 내용(체코 찰스대학교)

대학의 학기	1학기	2~5월, 13주	2학기	10~1월, 13주
온라인 강의 활용 과목	과목명	시청각 한국어	강의자	한국인 교수
	강의 언어	한국어	강의 대상	한국학과 2학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내용/주제	한국의 기후 및 지형 소개, 한국의 역사 및 정치 소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 소개, 한국과 체코 관계 소개, 한국 음식 문화 소개, 한국의 주거 문화 소개, 한국 대중문화 소개			
온라인 강의 개발/활용 방안	운영 방식	① 100% 온라인 강의 ② 온오프라인 혼합 강의		
	활용 방법	① 스트리밍 ② 다운로드 ③ 기타		
	보완 프로그램	① 현지 교수의 과제 부과 또는 토론 진행 ② 온라인 강의 담당 교수의 실시간 화상 세미나 ③ 온라인 강의 담당 교수의 현지방문 ④ 기타		
	온라인 강의 개설 이후 발전 방향	- 오프라인에서 보여 줄 수 없는 우수한 콘텐츠의 활발한 사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강의를 통해 한국학 콘텐츠의 질적 향상		
온라인 강의 개발 관련 의견	-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진, 영상 필요 - 일반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필요(LMS를 사용해야 하는 100% 온라인 강의는 대학 시스템상 어려움) - 온오프라인 혼합 강의이므로 기존 한 차시의 시간보다 짧은 온라인 강의 필요			

한국 문화, 한국학 관련 온라인 강의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 김지형(2016)에 따르면, 해외 대학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 역사와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되 주

5) 한국인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파견되다가 2015년에 한국학과 소속의 전임 교수로 채용되었다.

제별로 전문적인 내용과 자료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개론적인 성격의 온라인 강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경제, 한국의 대외무역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한국학 온라인 강의이다.

전문적인 한국학 강의는 다양한 한국학 전공자가 부족한 지역의 한국학과에서 요구가 있었다. 반면 개론적인 성격의 한국 문화 강의는 한국어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대학에서는 언어 학습과 연계된 문화 강의로, 한국학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대학에서는 본격적인 한국학과 연계될 입문 강의로 요구되었다. 찰스대학교 한국학과는 한국어와 한국학을 연계할 수 있는 한국학 입문 수준의 종합적이고 개론적인 온라인 강의를 필요로 하였다.

## 2.2 온라인 강의의 설계와 내용 구성

해외 대학의 정규 과목에서 활용될 온라인 강의는 해당 대학의 수요를 파악하여 강의 설계, 주제와 내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한국 문화 강의 담당 교수와 교수설계자는 해외 대학의 활용 목적, 현지의 교수 학습 환경, 온라인 강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강의 콘텐츠의 유형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범용적 서비스가 가능하고, 크로마키와 영상자료와 CG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사용하는 VOD형으로 정하고, 학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내용 구성과 제작 시 견지하도록 하였다.

수업의 질은 교수의 능력과 함께, 강의 내용의 질에 좌우된다. 특히 온라인 강의는 교수의 능력은 물론, 강의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콘텐츠 개발 전략의 우수성 등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된다. 교수의 강의를 촬영하여 보여주는 방식의 단순한 동영상 강의는 그 내용이 우수할지라도 학습자의 참

여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학 동영상 강의는 단순한 동영상 강의 제작 방식을 지양하고 음성 및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김지형 2016:56). 이에 한국 문화 온라인 강의는 주제별로 국내 대학의 해당 전공 교수가 내용 개발과 온라인 강의를 담당하고, 현장 방문 또는 답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sup>6)</sup>

또 대부분 3학점 분량의 과목에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시별 강 구성과 러닝 타임을 정하였다. 한 차시를 두 개의 강으로 구분하여 모듈형으로 강의를 설계하면, 해외 대학의 강의 담당 교수는 주제별, 내용별로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고 내용 배열에 있어서도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주제별 한 차시의 러닝 타임은 50분 내외, 각 차시의 한 강의 러닝 타임은 25~30분으로 하면 2학점 정도의 시간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학습을 하고 1학점 정도의 시간에는 교수와 학습자, 학습자 간 토론 및 추가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찰스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요구한 온라인 강의는 다음의 6개 주제로 개발되었다.

<표 3> 온라인 강의의 설계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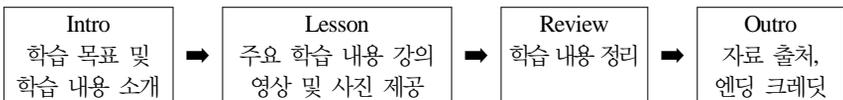
구분	입문 성격의 주제별 한국 문화 온라인 강의				
특징	차시별, 강별 모듈화된 내용 구성				
유형	VOD	구성	주제별 1차시 2강	시간	한 강당 25~30분
한국 개황	학습목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한국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세계 속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6) 한국 개황은 KHC대학교의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역사는 KH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음식 문화는 KH대학교의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교수, 복식 문화는 KH대학교의 의상학과 교수, 주거 문화는 KHC대학교의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대중 문화는 KHC대학교의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담당하였다.

한국 역사	학습목표	한국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을 파악하여 한국 역사와 한국인의 삶을 조망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한국 역사의 큰 흐름을 지배층의 변화와 문화의 흐름으로 나누어 소개
한국의 음식 문화	학습목표	한국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의 원리를 한국인이 지켜온 음식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한국 음식문화의 발달 배경 및 주요 특징 소개
한국의 복식 문화	학습목표	한국인의 전통 복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전통 복식의 명칭과 종류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한복을 어떻게 입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개념, 명칭, 종류, 형태, 착용방법, 특징 소개
한국의 주거 문화	학습목표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분포와 한국 전통 주거 양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 한국 궁궐의 대표적인 창덕궁을 살펴 보며 한국 주거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한국 주거문화의 주요 특징 소개 생생한 현장 촬영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안내
한국의 대중 문화	학습목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대중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생활문화 및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Drama, Movie, Infotainment, Musical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 대중 문화 소개

주제와 내용 선정 이후에는 단원 구성과 강의 제작의 과정을 거쳐 강의 개발을 완료한다. 강의 제작 단계에서는 강의 촬영, 강의 관련 자료 제작, 강의 디자인 및 편집, 번역 및 자막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강의의 주제별 학습 흐름도는 <그림 1>과 같으며, 강의 구성 화면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온라인 강의의 학습 흐름도



<그림 2> 온라인 강의의 주제별 구성

온라인 강의는 교수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집중도를 높이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조화, 도형화하여 학습정보를 제시하고 비교적 일관된 화면 배치를 활용하였으며 CG효과를 통해 핵심 내용을 텍스트 정보로 제시하였다.

### 3.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체코 찰스대학교 한국 문화 과목의 구성 및 운영

찰스대학교 한국학과에서는 2013년 2학기에 <시청각 한국어>(전공 선택)와 2014년 1학기에 <한국의 문화>(전공 선택)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과목으로 설계 및 운영하였다. 시청각 한국어 과목은 한국인 교수가 담당하였고, 한국의 문화 과목은 현지인 교수가 담당하였다.<sup>7)</sup>

7) 전공 선택 과목은 학과 교수 회의에서 학습자 요구 등을 반영해 1년에 2~3과목 정도 개설한다. 한국인 교수는 국내 대학에서 11년 정도 한국어 강의 경력이 있으며 과목 개설 당시 찰스대학교에서 1년째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현지인 교수

두 교수는 담당한 과목에서 개발되어 있는 온라인 강의를 해당 과목에 어떤 비중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교수-학습 범위와 방법의 실제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였다. 이 두 과목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며, 수업 진행 전부터 학습자들에게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하여 과목이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공지하였다.

이 장에서는 <시청각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두 과목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수업 설계와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1 시청각 한국어

시청각 한국어 과목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듣기를 기반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 1학기에 진행한 시청각 한국어 과목은 학습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에 따라 한국어 부교재인 CD와 한국 뉴스를 중심으로 한 집중 듣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학기에는 블렌디드 러닝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다. 구체적인 과목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시청각 한국어 강의계획서(체코 찰스대학교)

과목 코드	AKO100039	이수구분(학점)	전공/3학점
교수 언어	한국어	강의자	○○○ 교수(한국인)
수강생	한국학과 2학년	온라인 강의	40% 활용(수평형) <sup>8)</sup>
과목명	시청각 한국어(Audioorální cvičení)		
강의 목표	이 과목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학습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고취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에 한국어 강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시간 자료 및 온라인 강		

<sup>8)</sup> 한국 불교 전공자로 과목 개설 당시 찰스대학교에서 4년째 한국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의(VOD)를 혼합해 한국어 시청각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어 및 한국-체코 간 상호 문화 이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재	주교재 없음		
평가 방법 <sup>9)</sup>	출석 40%, 과제 30%, 시험 30% (시험 기간: 12.20~1.31)		
강의 세부 내용			
주	강의 내용	사용 콘텐츠	On/Off
1	수업 소개		Off
2	한국의 날씨	뉴스1(KBS, MBC, SBS 등)	On/Off
3	한국의 자연	뉴스2(KBS, MBC, SBS 등)	On/Off
4	한국 사회	뉴스3(KBS, MBC, SBS 등)	On/Off
5	한국의 교육	뉴스4(KBS, MBC, SBS 등)	On/Off
6	한국의 정치	뉴스5(KBS, MBC, SBS 등)	On/Off
7	대중 문화와 한류	VOD - 한국의 대중문화	On/Off
8	한국의 음식 문화	VOD - 한국의 음식 문화	On/Off
9	한국 역사	VOD - 한국 역사	On/Off
10	한국의 주거 문화	VOD - 한국의 주거 문화	On/Off
11	한국의 복식 문화	VOD - 한국의 복식 문화	On/Off
12	한국 영화	Youtube	On/Off
13	한국 영화	Youtube	On/Off

이 과목은 총 95분(중간 휴식 5분) 동안 진행되는데, 날씨, 자연, 사회, 교육, 정치, 영화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의 오프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중문화와 한류, 음식, 역사, 주거, 복식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에서 개발한 온라인 강의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하였다.<sup>10)</sup> 블렌디드

- 8) 우종정 외(2009)는 블렌디드 러닝을 혼합 방식(mixed mode)과 보조 방식(adjunct mode)으로 구분하였다. 혼합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절충하여 사용하는 수업의 형태로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세분화되는데, 수직형은 수업 범위를 분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 수평형은 수업 시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 9) 찰스대학교는 출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학습자가 복수전공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결석이 잦아 평가에서 시험보다 출석이 더 중요하다.
- 10) 온라인 강의는 하나의 주제가 두 강으로 구성되었는데 시청각 한국어 과목에서는 한 주제의 한 강을 선택해 사용하고, 나머지 강은 과제로 부과하였다. 그리고 일부 온라인 강의(한국의 음식 문화 등)는 Youtube에서 음식 만들기 찾기와 같은 과제로



고, 7주차부터 11주차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온라인 강의는 다른 주차에서 수업 자료로 사용한 웹사이트 뉴스에 비해 동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sup>11)</sup> 해외 대학에서의 자료 제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자와 교수 모두 동시에 접근하는 데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만든 우수한 콘텐츠를 삽입하여 교수할 수 있어 교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현장 방문, 답사 형식 등 다양하게 제작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었다.

### 3.2 한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 과목은 전반적인 한국 문화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학기에 새로 개설된 이 과목은 현지인 교수가 한국 문화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던 중, 해외 학습자를 위해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연계한 시청각 한국어의 운영 과정을 토대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시청각 한국어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 문화의 분야를 확장하고, 한 주제별로 2강으로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전반적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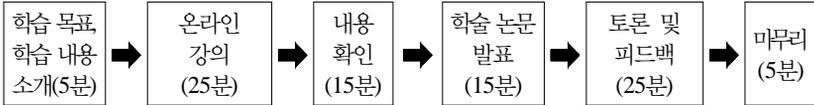
<표 5> 한국의 문화 강의계획서(체코 찰스대학교)

과목 코드	AKO100090(학부) AKO500087(대학원)	이수구분(학점)	전공/4학점
교수 언어	체코어	강의자	○○ 교수(현지인)
수강생	한국학과 고학년, 석사과정	온라인 강의	60% 활용(수평형)
과목명	한국의 문화(Korejská Kultura)		

11) 웹사이트의 뉴스는 현장성이 있고 주제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뉴스의 주제나 웹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나 난이도가 균질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 버퍼링 등의 문제 때문에 시청각이 아닌 청각 기반의 자료로 국한되기도 한다.

강의 목표	이 과목은 시청각 수업 자료 및 강의를 통해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학문 한국어 분야에서의 듣기 능력을 확장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특히 한국인 교수들의 학문적 접근을 소개하고 학문 주제에 대한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재	Clark, Donald N. Culture and Customs of Korea. Greenwood Press, 2000. Coppola, Antoine. "Korean Dinner Table: A Joyous Art for Senses." Korea Focus, Winter 2007. Hughes, Theodore. "Planet Hallyuwood: Imaging the Korean War." Acta Koreana 14, no. 1 (erven 2011): 197 - 212. Jahn Jin-sam. "Evolution of Hanok--Good or Evil? Traditional Homes Display New Potential." Korea Focus 15, no. 1 (Spring 2007): 78 - 80. Kim, Jeongmee. "Why Does Hallyu Matter?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Wave in South Korea." Critical Studies in Television 2, no. 2 (Listopad 2007): 47 - 105. Kim Soon-ja. "Making Kimchi and Sharing Love." Korea Focus, January 2014, 1 - 2. Park, So Young. "Transnational Adoption, Hallyu, and the Politics of Korean Popular Culture." Biography: An Interdisciplinary Quarterly 33, no. 1 (Winter 2010): 1 - 16. Shin, Jung-hye. "Gendering Places: Residential Technology and Changing Family Relations in Korea." Gender, Place &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20, no. 3 (May 2013): 382 - 400. doi:10.1080/0966369X.2012.694356. -- --. "Keeping Warm in a Changing Place: The Meanings and Place Experiences of the Korean Heated Floor and House Structure in the 20th Century." Space & Culture 15, no. 4 (November 2012): 344 - 60. doi:10.1177/1206331212460166. Yun, Jieheerah. "Rethinking Vernacular Architecture: The Case of Hanoks in South Korea." Journal of Architecture 19, no. 1 (January 2014): 108 - 27. doi:10.1080/13602365.2014.885555.		
평가 방법	출석 40%, 과제 30%, 시험 30% (시험 기간: 5.20~6.30)		
강의 세부 내용			
주	강의 내용	사용 콘텐츠	On/Off
1	강의 소개		Off
2	한국 개황 I	VOD - 한국 개황	On/Off
3	한국 개황 II		On/Off
4	한국 개황 III		Off
5	대중 문화와 한류 I	VOD - 한국의 대중 문화	On/Off
6	대중 문화와 한류 II		On/Off
7	대중 문화와 한류 III		Off
8	한국의 음식 문화 I, II	VOD - 한국의 음식 문화	On/Off
9	한국의 주거 문화 I	VOD - 한국의 주거 문화	On/Off
10	한국의 주거 문화 II		On/Off
11	한국의 복식 문화 I	VOD - 한국의 복식 문화	On/Off
12	한국의 복식 문화 II		On/Off
13	종합적 토론		Off

이 과목은 총 95분(중간 휴식 5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데, 한국 개황, 대중 문화와 한류, 음식 문화, 주거 문화, 복식 문화 총 다섯 가지 주제 모두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사용하였다.



<그림 5> 한국의 문화 과목의 블렌디드 러닝 학습 흐름도

이 과목은 2014년 2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3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주차부터 12주차까지 온라인 강의 5개(주제별 2강, 총 10강)를 활용하였다. 현지인 교수는 <그림 6>과 같이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먼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였으며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습자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 진행하였다.

가. 온라인 강의



나. 학습자 발표 및 토론



<그림 6> 찰스대학교 한국의 문화 1학기 운영 자료

이 과목의 구성 및 운영은 특히 해외 한국학 전공이 있는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왜 필요한지,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한국어 내지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지만 한국 문화의 각론에서는 교육 내용 준비에 어려움을 경

힘하게 된다. ‘한국의 주거 문화’, ‘한국 경제’ 등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주제를 가르쳐야 할 때 교재의 선정과 신청, 배송 등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게 된다. 또 적절한 자료를 찾아도 내용 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전문가와 교수설계자가 협력해 만든 온라인 강의는 주거, 복식, 음식 등 문화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블렌디드 러닝을 염두에 두고 설계, 개발되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의 강의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부 고학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분야별로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는 과목에서는 교수가 전공한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한 학기 수업 설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 4.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교수 및 학습자의 인식

이 장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계획과 운영,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종강 후에 진행한 교수와 학습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교수의 인식 조사는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학습자 인식 조사는 개별 및 집단 면담 후 설문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 4.1 교수 인식 조사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한국인 교수(이하 K교수)와 현지인 교수(이하 C교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4월 25일에 찰스대학교 한국학과 세미나실에서 1차 면담을 하고 2015년 7월 24일에 서울에서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의 내용은 ‘수업의 구성과 계획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 ‘수업 계획과 운영에서의

학습자 안내와 상호작용 부분’, ‘온라인 강의의 활용에서 주의해야 할 점’, ‘향후 온라인 강의 사용 여부’ 등이었다.

#### (1)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수업의 자연스러운 연계

과목의 구성과 계획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담한 결과 K교수와 C교수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을 계획할 때부터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수업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생각하고 과목을 설계·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두 교수는 모두 온라인 강의를 교실에서 교수의 강의를 대신하는, 즉 수업의 주요 내용으로 사용하고 온라인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온라인 강의를 수업의 보조 자료나 과제를 위한 보충 자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해외 한국학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면대면 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유럽 학습자의 특성에도 적합하다고 보았다.

---

12) 운영에서는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시청각 한국어, 한국의 문화)과 학년 특성(2학년, 고학년 및 석사과정생) 때문에 목표에 따른 초점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K교수는 수업의 목표를 상호 문화 이해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한국어 듣기 능력, 전략 개발과 한국어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 반면 C교수는 한국 문화의 전반적 이해와 학술적 한국어 능력의 향상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과목 구성 및 계획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

<p style="text-align: center;">K 교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강의는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여 주는 것이 좋다. 즉 교수가 먼저 수업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자극한 후, 온라인 강의를 본다. 이후 학습자의 내용 이해 여부를 퀴즈와 토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 학습자는 한국 대학 교수의 강의를 직접 수강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강의를 함께 보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li> <li>2.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토론과 과제에도 온라인 강의 내용을 일정한 비율로 반영해야 한다. 학습자가 온라인 강의를 수업의 자료로 생각하지 않고 수업의 주요한 한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 이 방법은 이후 한국에 대한 학습자의 정보 검색 및 정보 접근 능력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li> <li>3. 이전 학기에 수업 블로그를 운영해 봤는데, 학생들이 평소 SNS 활동은 하면서도 수업 관련 블로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C 교수</p>	<p>수업을 계획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선 학습자가 한국인 대학 교수의 학술적 강의 진행 방식을 이해하고 강의에서 논의되는 학술 표현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찰스 대학교의 학생들은 거의 100% 한국 자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간다. 그러나 한국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해외의 한국학 전공자들 특히 유럽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때문에 한국의 대학 교수들의 전공 개론 수업은 해외 한국학 전공자들에게 매우 유의미하다. 특히 강의 자세와 방법, 어휘 사용 등은 해외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작한 온라인 강의가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학습자가 혼자 보면서 익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수와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li> <li>2. 이 과목은 학부 고학년 학생과 석사과정생이 함께 듣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의 향상 못지않게 학술적 능력의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학술 논문을 읽고 요약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학술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 수업의 두 번째 축을 형성하도록 구성하였다.</li> <li>3. 부가적으로 유럽 내 교수나 학습자는 교실을 떠난 다음에는 별도의 학습이 이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학습은 교실에서 끝나야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ol>

K교수는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내용의 수준, 온라인 강의의 진행 순서, 과제 설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의 활용이 수업 전반에서 활용되도록 내용을 계획하였다고 답했다. C교수 역시 온라인 강의와 연계된 논문을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두 교수 모두 온라인 강의 내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 능력의 제고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한국 정보 검색 능력의 제고(K교수), 한국 대학 수업의 간접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 제고(C교수)를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학습자 안내와 상호작용

블렌디드 러닝 과목을 운영하면서 학습자 안내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 교수 모두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강의의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우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온라인 강의를 수업 시간에 교수와 함께 보고 상호작용 활동과 연계되도록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응답하였다.<sup>13)</sup>

<표 7> 수업의 안내와 상호작용

K 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럽 학습자의 경우 VOD뿐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혼자 듣는 경우엔 집중을 잘 안하는 것 같다. 교수가 듣기 전략이나 콘텐츠 이해 부분을 같이 짚어주는 것을 학습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교실에서 보고 교수-학습자의 상호작용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li> <li>2. 또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강의 주제를 안내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학습자가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li> </ol>
C 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습자들은 전통적인 방법의 수업을 많이 들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자에게 낯선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교수의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 온라인 강의를 시작으로 이것과 연계된 다양한 토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유익했다.</li> </ol>

13) 이는 블렌디드 러닝 모형 중 수평형에 해당한다.

또 두 교수 모두 온라인에서의 안내 및 상호작용보다 오프라인에서의 안내 및 상호작용을 선호한 이유로 해외 학습자가 교수와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한국인 교수를 통해 한국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듣기를 원하며, 교수의 고급 한국어 발화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 온라인 강의의 활용

온라인 강의의 제작과 활용에서 고려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우선 해외 대학에서 사용할 만한 수준의 내용인지, 한국어뿐만 아니라 내용학적으로 대학 수준에 적합한지, 수업을 통해 부수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비공식적 채널이 아니라 저작권이 이미 해결되어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며 내용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교수가 일일이 콘텐츠 내용과 저작권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과목 특성에 맞게 제작하는 것은 힘이 들고 한국 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설계가 잘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표 8> 온라인 강의의 제작과 활용

K 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에서 사용할 만한 수준의 내용인지,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해 내용을 선별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를 고려해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였다. 해외 현지에 꼭 맞는 온라인 강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저작권이 해결된 고급 콘텐츠가 많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해외 대학 교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li> <li>2. 오프라인 수업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다양한 문화 주제로 개발된다면 해외 대학에서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 또 교수 설계가 잘된 온라인 강의는 해외 교수가 분석하고 수업에 활용하기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 개발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li> </ol>
C 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에서 수업을 준비할 때 책이나 논문 외에 생성한 자료를 보여 주고 싶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많은 자료를 사진과 비디오로 찍고, 책도 많이 사 두는 편이다. 그러나 직접 촬영하는 것은 기술상의</li> </ol>

	<p>한계가 분명히 있다. 설계가 잘되어 있고, 저작권이 해결된 좋은 콘텐츠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한국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부수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p> <p>2.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 교수가 아무리 말해도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한국 대학 교수가 직접 가르치며, 그런 부분을 보여 주기 때문에 좋다.</p>
--	--

여기에 더해 C교수는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 교수가 아무리 말해도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한국 대학 교수가 직접 가르치며, 그런 부분을 보여 주기 때문에 좋다”고 응답하였다. 즉 해외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내 대학의 강의 간접 경험과 같은 외적인 요인도 부수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시 고려할 점

블렌디드 러닝은 효과가 있는 한편 여러 가지 고려할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 C교수 모두 해외 대학의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의 구비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sup>14)</sup>

온라인 강의는 해외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해결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의 활용이 문화 과목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해외 대학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진행하기에 온라인 강의가 당분간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 스트리밍은 실시간 재생이기 때문에 보통 무거운 자료가 많은 한국 강의의 특성상 유럽에서 잘 열리지 않으며, 스트리밍의 내용이 일관된 틀이 없거나 시간 배분 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온라인 강의는 해외 대학의 교수가 오프라인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분석하기 좋게 구조화되어 있고, 러닝 타임도 25~30분 정도로 고르기 때문임을 확

14) 이는 학습자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는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콘텐츠가 끊기는 문제와 온라인 강의를 볼 때 프로젝터가 중간에 멈추는 문제 등이다.

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온라인 강의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현지 특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주제의 다양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표 9> 온라인 강의 개발 및 활용에서 고려할 점

<p style="text-align: center;">K 교 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 대학과는 다르게 유럽의 대학은 멀티미디어 기기 사용 환경이 좋지 않다. 특히 찰스대학교는 대학 건물이 문화재여서 함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 때문에 컴퓨터나 프로젝터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했다.</li> <li>2. 체코에서의 온라인 환경도 그리 좋지 않다. 한국에서 만든 자료나 콘텐츠는 대부분 유럽에서 연결할 때 버퍼링이 매우 심하고 심지어 안 열리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보다는 USB와 같은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는 데, 학습자 입장에서 실시간 연결되는 것보다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자료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li> <li>3. 유럽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제작된 자료가 좋다. 또 해외의 교육 환경과 학습자 환경을 고려한 온라인 강의 내용이 더 많이 제작되어야 한다.</li> <li>4. 진행했던 수업은 한국어 듣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온라인 강의에 등장한 국내 대학 교수의 발음 중에 비표준어가 있어 학생들이 듣기 어려웠다. 해외 대학에서 사용할 콘텐츠를 만든다면 국내 대학 교수의 언어 사용에도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C 교 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트리밍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못해서 중간에 한국에 외부저장장치를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블렌디드 러닝의 수업 방식은 좋으나 기기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은 이런 수업 형식의 한계라고 생각한다.</li> <li>2. 여러 학문 분야의 강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온라인 강의 내용이 주제마다 학문적 전문성에서 편차가 보였다. 해외에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의 전문성 편차 정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별표 표시나 난이도 표시와 같이.</li> <li>3. 수업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나의 입장에서 주입하는 것 같아서 한국인 교수의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논문 말고 강의로.</li> <li>4. 유럽의 대학은 3년제로 4년제부터는 석사로 이어진다. 때문에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에 심화형도 있으면 좋겠다. 또 같은 온라인 강의 내용을 사용하는 한국 및 해외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li> </ol>

두 과목의 수업 목표에 따라 온라인 강의 제작 시 고려할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K교수는 온라인 강의에 나타난 교수의 언어 사용 문제와 해외 대학의 인프라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C교수는 온라인 강의의 학문적 전문성의 균형과 이에 대한 정

보의 난이도 고려가 필요하며, 입문 성격의 강의더라도 개론적 강의와 심화형 강의로 구분된 온라인 강의가 개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개론적 성격의 강의에서는 한국인의 다양한 시각을, 심화형 강의에서는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은 내용이 논의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난이도 등급 등을 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5) 이후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운영 계획

두 교수 모두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와 한국학 수업에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K교수는 콘텐츠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응답하였고, 특히 학습자가 온라인 강의를 혼자 보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교수는 콘텐츠의 내용과 장르, 한국의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10> 이후 블렌디드 러닝 운영 계획

K 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어 관련 강의, 한국 문화 관련 강의에서 모두 활용해 보고 싶다.</li> <li>2. 강의실에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수업하는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자를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아직은 많은 학습자들이 혼자 선행 학습이나 과제 수행으로 온라인 강의 보는 것을 어려워한다.</li> </ol>
C 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고 싶다. 다만 내가 원하는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더 많아져야 앞으로 접근하기 쉬울 것 같다.</li> <li>2. 콘텐츠 개발을 할 때에는 한국의 현대 생활, 아주 실제적인 현대 생활을 접할 수 있는 한국학 분야를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한국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에도 해외 한국학 전공자들은 관심이 있다.</li> </ol>

면담 결과, 두 교수 모두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이 한국어 수업과 한국학 수업에서 효과가 있으나 향후 해외 대학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 연결을 쉽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좀 더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강의가 개발되어야 각 과목의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게 모듈별로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해외 대학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진행하기에 스트리밍보다는 당분간 온라인 강의를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와 러닝 타임에서 온라인 강의가 해외 대학 교수가 분석하고 블렌디드 러닝을 계획하는 데 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코를 비롯한 해외 대학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수의 안내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다른 방식의 수업 연계(토론, 발표 등)와 학습자 상호작용이 진행될 때 수업 효과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 4.2 학습자 인식 조사

블렌디드 러닝에 참여한 학습자의 관심 정도와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시청각 한국어 과목 수강생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7일에, 한국의 문화 과목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25일에 개별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를 각각 진행하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해 학습자의 의견을 재확인하였다.<sup>15)</sup>

#####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연스러운 연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수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었는지, 블렌디드 러

15) 시청각 한국어 과목의 학습자는 전원이 20대 초반으로 국적은 슬로바키아(1명), 체코(7명)이며, 남성(1인), 여성(7인)이었다. 그리고 총 여덟 명의 수강생 중 체코인 여성 다섯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한국의 문화 수강생은 학부생(4명), 석사과정(2명)으로 총 여섯 명이었고, 국적은 전원이 체코였다. 연령은 20대 초반(4명), 20대 중반(1명), 30대 중반(1명)이다. 설문과 인터뷰 응답자는 총 네 명이었다. 두 과목 전체 수강생 중 65%의 학습자가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찰스대학교를 비롯한 중부유럽의 한국학과는 아시아와 달리 학습자 수가 적은 편이다.

닝의 흥미와 효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수업 시간에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 강의에서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수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자료라서 좋았다”와 같이 긍정적이었다. 설문조사로 확인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온라인 강의에 대한 흥미와 효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수업이 잘 연계되었다.	3.8
온라인 강의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3
온라인 강의를 있어서 수업이 더 흥미로웠다.	4.0

학습자들은 교수가 수업 설계에서 목표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수업의 연계에서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동의는 수업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블렌디드 러닝이 효과적이었고, 온라인 강의를 적절했음을 알 수 있었다.

## (2) 교수의 안내와 동기 부여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학습 동기 부여가 되었는지, 교수의 안내가 잘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또 수업 전 동기 부여도 보통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수업을 한 이후에는 수업에 대한 흥미와 수업 효과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는 학습자의 면담에서 나온 결과를 설문조사로 다시 확인한 내용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계획할 때 교수가 수업 구성과 학습자 안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sup>16)</sup>

16) 수업을 운영한 두 교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잘되었다고 응답하여 학습자의 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lt;표 12&gt; 온라인 강의의 안내와 동기 부여

온라인 강의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3.5
온라인 강의를 보도록 동기 부여가 되었다.	3.5

## (3) 온라인 강의의 내용 및 활용, 제작 시 고려할 점

온라인 강의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 학습자들은 “재미있는 자료였다. 수업에 잘 맞았다”, “자료가 좋았다. 하지만 어떤 내용은 조금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수업에 잘 맞았다”, “온라인 강의는 주제에 따라 교수님이 다른 데 어떤 교수님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조금 빠르고 잘 안 들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와 같이 답하였다. 난이도의 문제는 온라인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주제별로 달라서 언어 사용과 발화 속도가 다양했던 점, 전공이 다양해 개론부터 심화까지 내용의 범위가 보다 넓어졌던 점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개발 시 해외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특징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수업 목표 및 내용, 난이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였다.

&lt;표 13&gt; 온라인 강의 선택과 난이도

온라인 강의는 강의 목표 및 내용에 맞게 잘 선택되었다	3.8
온라인 강의의 시간이 적절하였다.	4.0
온라인 강의의 난이도가 적절하였다.	3.0

학습자 조사 결과, 온라인 강의 시간의 적절함이 높게 평가되어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강의의 비중이 적당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콘텐츠 내용의 일부가 해외 학습자에게 맞지 않고 어려워 내용 설계 시 주의해야 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학습자들은 온라인 강의 사용 환경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처음에 버퍼링이 있으면 강의에 집중하기 어렵다”, “온라인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외에 내용 이해를 위해 자막을 넣거나 화면 구성과 색상 등의 디자인이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는 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표 14> 온라인 강의의 접속 문제

우리 학교의 시설이 온라인 강의를 보는 데 적절하다.	3.5
온라인 강의를 보기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4.3
온라인 강의를 잘 이해하는 데 자막과 디자인이 중요하다.	4.8

이는 교수 면담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해외 대학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보다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교수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 더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4) 이후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대한 관심

앞으로도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듣고 싶은지에 대해 학습자 전원이 “듣고 싶다”고 답하였다. 어떤 온라인 강의를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라고 하였고 구체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sup>17)</sup>

<표 15> 앞으로 보고 싶은 온라인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다양한 강의를 있으면 좋겠다.</li> <li>- 한국 문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사는지 알려 주는 강의를 좋다.</li> <li>- 한국 대중문화. K-POP 말고 다른 대중문화도 다양하게 알고 싶다.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문화를 알려 주면 좋겠다.</li> <li>- 한국 음식. 음식 문화 강의를 정말 재미있었다. 앞으로도 전통적인 것보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보고 싶다.</li> </ul>
---

17) 학습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어려워했다.

즉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 특히 대중문화, 음식 문화, 일반인의 문화 등에 관심이 높았다.

학습자의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학습자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수업이 잘 연계되어 블렌디드 러닝이 효과가 있고, 수업 흥미도도 높였다고 응답하였다. 또 온라인 강의의 내용이 보지 못했던 자료이고 다양해서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수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수업 안내와 동기 부여는 조금 더 자세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주제별로 온라인 강의를 달라서 재미있었지만, 온라인 강의의 교수에 따라 난이도나 설명력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으며, 블렌디드 러닝의 수업에 교육 환경이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스트리밍보다는 온라인 강의가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학습자 전원이 블렌디드 러닝을 듣고 싶다고 응답하여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강의의 주제로는 전통적인 주제 외에 한국의 일반적이고 현대적인 문화가 좀 더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실제 온라인 강의 개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해외 대학의 과목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다. 체코 찰스대학교 한국학과에서는 한국 대학에서 개발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시청각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두 과목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한국인 교수와 현지인 교수 모두 해당 대학의 교수-학습 환경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학습 효율의 측면에서 수평형 수업 모형을 선호하였다. 학습자가 온라인 강의를 혼자 수강하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교수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배우기를 원하며, 학습자의 인터넷 환경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둘째,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수업의 목표와 온라인 강의

활용의 주안점에 있어 한국인 교수와 현지인 교수가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인 교수가 온라인 강의의 내용과 함께 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면, 현지인 교수는 강의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한국 대학의 경험과 학술적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셋째, 온라인 강의 활용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습자 모두 효과가 있었고 흥미로웠다고 인식하였으며 긍정적이었다. 다만 학습자가 보다 강한 동기를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수업 설계 및 준비에서 교수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온라인 강의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인과 현지인 교수 모두 동의하였으며, 학습자도 온라인 강의를 계속 보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습자 모두 더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온라인 강의를 개발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 대학에서 사용할 한국 문화 분야의 온라인 강의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주제 외에도 현재의 한국을 알 수 있는 현대, 일반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강의 내용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의 주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 강의 내용 정도를 입문과 심화 혹은 1, 2, 3단계와 같은 난이도로 구분하여 다양한 수준의 문화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수-학습자의 의견에서 본 것처럼 해외대학에서는 스트리밍보다는 온라인 강의가 현재 활용하기에 더 좋다. 이는 교육 장소의 인터넷 환경 문제를 감안해서 콘텐츠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강의가 설계 단계에서 구조화된 교수-학습 틀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강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콘텐츠가 구조화되어 있어야 현지 교수가 분석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래서 수업

에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기 위해 콘텐츠를 분석하는 데 부담이 없었다. 또한 계획된 러닝 타임이 적절하여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하는 데 용이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강의가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해외 대학의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넷째, 온라인 강의는 제작하고 나면 보통 1~2년 정도 일정 기간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 목표와 범위, 난이도와 교수-학습 환경, 학습자 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해외 대학의 교수들은 다양하고 깊이가 있으며, 수업 활동에 좋은 매개가 될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문가 특강, 세미나 등의 특별 수업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유럽 내에서만 해결되어 한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수와 학습자 모두 한국의 최신 자료와 수준 높은 자료가 오프라인 수업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온라인 강의이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강의 개발은 해외 한국어 내지 한국학의 전공 특성, 교수 및 학습자 특성, 교육과정 등을 파악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해외 대학 한국학과에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두 과목의 수업 설계 및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해외 대학의 한국어 과정, 한국어학과, 한국학과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강의 개발과 블렌디드 러닝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남옥(2014).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한국어교육학 개론> 강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8집 1호 통권14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81쪽~210쪽.
- 김동일 외(2005).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Blended d-Learning 체제 정착 방안 연구-S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6권 제4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97쪽~123쪽.

- 김정태·김희진(2012). 오프라인 대학교 영어교육에 최적화된 블렌디드 러닝 교수모형 연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vol.15 no.1,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135쪽~155쪽.
- 김지형(2016). 해외 한국학 온라인 강의의 구성과 운영 방안, <어문학> 제132집, 한국어문학회, 51쪽~76쪽.
- 김지형 외(2015). 국외 한국어교육기관 현황 조사 보고서, 세종학당재단.
- 김희진·이현구(2011).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 수업운영 방식 연구, <영어교과교육> 제10권 2호,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85쪽~114쪽.
- 남정권 편(2008). 블렌디드 수업 설계 전략, 한국학술정보.
- 방성원(2005). 웹 기반 한국어 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3쪽~184쪽.
- 서지연·심창용(2012). 초등영어 블렌디드 수업 모형의 적용과 효과, <초등영어교육> vol.18 no.2,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271쪽~293쪽.
- 신동석(2003). 블렌디드 러닝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종정 외(2009). 대학에서 면대면 수업 대안으로서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 <논문지> 제7권 제2호, 한국정보기술학회, 219쪽~225쪽.
- 이동훈·이상근(2009).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학원수업 활성화방안을 위한 연구-사설 영어학원 강사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5권 1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쪽~18쪽.
- 이혜정(2008). Blended e-Learning 교수전략, 교육과학사.
- 이혜정·이성혜(2007).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블렌디드 이러닝 활성화 방안: 교수들의 인식 및 요구 조사 분석으로부터,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77쪽~102쪽.
- 임정훈(2003). 교실수업-사이버 학습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장미라(2016).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한국어 교사의 관심 단계 연구, <한국어 교육> 제27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9쪽~321쪽.
- 최병수·유상미(2013). 대학 강의실 수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H형 블렌디드 이러닝 적용 효과 분석, <논문지> 제16권 제3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49쪽~60쪽.
- Driscoll, M.(2002). Blended learning, *e-learning*, 3(3), 54쪽~56쪽.
- Garrison, D. R., & Kanuka, H.(2004). Blended learning: Uncovering its transformative potential in higher education,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7, pp. 95~105.
- Rosenberg, M. J.(2001). *E-Learning-strategies for delivering knowledge in the*

*digital age*, McGraw-Hill Korea, Inc., 유영만 역(2001). e-Learning(e-러닝)-디지털 시대의 지식 확산 전략, 물푸레.

Tomáš Horák(2011). 체코 내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연계-전통 어문학 연구의 필요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8쪽~113쪽.

Wilson, G.(2008). *Teachers in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Case studies of ICT-enhanced blend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Verlag: VDM.

서진숙(Seo Jinsuk)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2-3299-8890

전자우편: jsseo15@khcu.ac.kr

장미라(Jang Mira)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2-3299-8588

전자우편: jmr@khcu.ac.kr

접수일자: 2016년 10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11월 20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5일